

죽을 각오로 참선 하면

법흥 스님 (송광사 회주)

불교는 자기 마음안에서 찾는 관심일법

번뇌를 끊고 반드시 피안에 들겠다고 기도해



법흥 스님 1931년 충북 괴산에서 출생. 고려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1959년 대구 동화사에서 효봉 스님을 은사로 득도. 통영 미래사에서 3년간 은사 스님을 모시고 공부. 그 후 동화사 금당선원·도봉산 망월사·오대산 상원사·김천 직지사·문경 김통사 등 제방 선원에서 수행정진. 1974년부터 77년까지 송광사 주지, 1984년 송광사 유나 역임. 이후 34년째 송광사에 주석하고 있다. 조계종 원로 의원이며, 2008년 대종사 법계를 받았다.

송광사에 들어서자, 우뚝하게 버티고 있는 조계산의 능글한 기암과 웅장하고도 기세등등하게 서 있는 당우들, 거침없이 쪽쪽 뿜어 내린 물기와 하며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남성이 느껴진다. 법성도 형식을 띤 가람배치로 인해 비를 맞지 않고도 온 도량을 다닐 수 있을 만큼 기와지붕들이 귀를 맞대고 있어 조계산에서 내려다보면 아기자기한 맛도 있으면, 송광사에 발을 들여 놓는 순간 백척간두에서도 한 걸음을 내딛고야 마는 서릿발 같은 기암이 느껴졌다.

지금으로부터 800여년전, 고려 때 보조 지눌(普照知訥)스님께서 정혜결사(定慧結社)를 통해 당시 타락한 고려 불교를 바로잡아 한국 불교의 새로운 전통을 확립한 곳이 바로 송광사이다. 지눌 스님의 권수정혜결사문(權修定慧結社文)은 마음을 바로 뒤움으로써 미혹한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음을 밝히고, 그 방법으로 선정과 교화를 같이 닦아야 한다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제시하였다. 즉 정과 혜는 한마음에 통일되어 항상 균형을 지녀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지눌의 결사운동은 정법(正法) 불교로 복귀하기 위한 작업이었고, 당시 불교계를 혁신하고 재건하기 위한 선언서였다. 지눌 스님의 정혜결사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불교가 이렇게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송광사는 지눌 스님을 비롯하여 열여섯 분의 국사(國師)를 배출한 곳이기도 하다. 정정(正正) 스님은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근래에 와서는 현대 불교사에 큰 획을 그은 효봉 선사께서 주석하셨던 곳이기도 하다.

효봉 스님의 상좌인 법흥 스님은 송광사 화엄전 방우산방(放牛山房)에 주석하고 있다. 주석처 이름은 월정사 외전 강사였던 스님의 대학 은사 조지훈 선생이 머물던 '방우산장'에서 따왔다. 법흥 스님의 거처는 작은 불교도서관이다. 동국대경원에서 편찬한 한글 대장경, 고려 대장경, 신수대장경을 비롯하여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경전만으로도 한 벽면을 채우고도 남았다. 거기다가 선교 강의에 참고할 일본서적과 조지훈 전집 등 일반 대중서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책들이 서가를 차지하고 있다. 스님은 방우산방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책을 건네주시는 것으로 유명하다.

법흥 스님은 어릴 때부터 신심이 깊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소풍을 가면 인근 절에 들러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곤 했다. 대학시절에는 학교 근처의 안암

동 개운사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8배를 했을 정도로 신심이 남달랐다. 대학을 졸업한 뒤 자신의 진로를 생각하면서 취직보다는 출가에 더 비중을 두었고, 부모님이 다니던 문경 대승사를 찾았다. 마침 산내 암자인 묘적암에서 일타 스님이 홀로 정진하고 있었다.

일타 스님의 권유로 하루에 3500배씩 사흘 동안 일반 배를 올린 뒤 출가를 결심했다. 일타 스님이 정성스레 머리를 깎아주었고, 묘적암에서 석 달 동안 일타 스님을 모시면서 공양주노릇을 했다. 일타 스님은 큰 절에 가야 배울 것이 있다면서 대구 동화사에 주석하고 있던 효봉 스님을 찾아가라고 일했다.

효봉 스님은 법흥 스님을 뭉그러미 쳐다보시더니 "얼굴이 중 상이고 사주에도 불도가 들었는데 왜 이제까지 속세에 있었느냐"며 혼쾌히 출가를 허락해 주었다. 8년간의 장좌불와(長坐不臥)와 오후불식(午後不食) 등 치열한 정진으로 큰 깨달음을 이루고 출가 12년 만에 송광사 조실(住持)에 추대됐던 선가(禪家)의 전설과도 같은 효봉 스님으로부터 출가의 허락을 받았기에 법흥 스님은 그 당시의 감격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효봉 스님은 흘러내린 땀을 긁어모아서 심지를 닦아 다시 불을 밝혔어요. 걸레도 너무 짜면 빨리 해진다고 살살 짜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는 엄격했습니다. 중 됐으면 참선밖에 더 있느냐? 강사가 죽을 때 후회하며 죽는다. 팔만대장경을 거꾸로 외운다 해서 생사를 해탈하느냐? 평범하고 미혹한 범부를 고쳐서 부처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니, 죽을 각오로 참선하라는 말씀을 늘 하셨지요."

스님은 여기까지 왔으니 법문을 들어야 한다면서 첫째는 왜 불교를 믿어야 하는지를 설했다.

"우리가 불교를 믿는 목적은 인생고를 해탈하고 피안인 극락에 가는데 있어요. 생명의 세계에서 해탈의 세계로 들어가는 종교가 불교요, 사람 사람마다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이 있음을 믿고 자력으로 피안에 가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यो, 나는 빛이니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고 설했었지만,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일체법을 등불로 삼을지언정 남을 믿거나 남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님을 모시고 아들딸을 공부시키고 먹고 살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여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돌도 없이

신뢰하고 애착한 내 부모와 처자도 어느 날 죽을 양에서는 앞서기도 하고 뒤따르기도 합니다."

스님은 부운거사의 시 한 구절을 읊어주시면서 가족에 대한 착도 부질없음을 깨우쳐주었다.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되 집착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처자와 권속이 삼매같이 걸려있고
금은과 옥백 보물 재산같이 쌓였어도
죽음에 다달아서 내 한 몸만 홀로 가니
이것도 생각하면 허망할사 뜬구름일세.

"자기가 위하는 사회, 국가, 인류도 결코 자기의 이상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며 희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부모의 인연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태어나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기 마련입니다. <법화경>에서도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육신은 생명이 있으니 마음은 생명이 없습니다. 잠깐 머물다 가는 육신을 끌고 다니는 마음, 이 주인공을 찾는 것이 불교이며, 참선입니다. 경성을 하였다 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 번뇌의 불꽃이 사라지니 멸도(滅道)요, 자신의 자성을 보았으니 견성(見性)입니다. 불교는 자기 마음 안에서 찾는 관심일법(關心一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흥 스님은 29살에 출가를 하였으니 늦깎이 출가인 셈이다. 늦은 출가를 만회하기 위해 혹독한 수행을 마다하지 않았다. 송광사 선원·동화사 금당선원·양산 통도사 보광전·합천 해인사 선원에 방부를 들이고 정진했다. '무자(無字)회두'를 들고 도봉산 망월사·오대산 상원사·김천 직지사·문경 김통사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을 했지만 진전은 없고 앞이 컴컴할 뿐이었다.

그래서 택한 것이 기도와 주력이었다. 법흥 스님은 오대 적멸보궁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기도 도량을 돌며 일심으로 기도했다. 해인사에서는 성철 스님의 권유로 삼천 배를 시작해 340일간 17만 배를 올렸고, 또 340일 동안 하루 4번 1시간씩 법당에서 마지름을 울리며 기도를 올렸다. 그때 기도 발원은 오로지 '자신과 부모님과 인연 있는 모든 중생들의 해탈'이었다.

"많은 신도들이 불보살님께 자신의 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에 자신의 욕심이 들어가면 그건 기도가 아니지. 진정한 불자라면 번뇌를 끊고 반드시 피안에 이르겠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는 좋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절에 시 주 많이 하고 스님들이 축원해 준다고 해서 극락 가는 것이 아니라, 극락은 번뇌를 여의어야 갈 수 있는 곳을 알아야 해요."

스님의 법문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막힘이 없다. 송광사의 역사와 역대 조사와 관련된 이야기, 은사 효봉 스님의 일생과 조지훈 선생의 문집 등을 말씀하시는데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것과 같다. 법흥 스님에게 사형이 되는 구산 스님은 "자네는 전생에 정진을 통달한 유명한 강사였을 것"이라고 부러

성불화 카필라 신발

신발공학이 만든 가장 편안한 신발 성불화 인기!



▲성불화
남여공용

불자님 평상복에도 세련! 스님 승복 색상에 맞춰 골라!

국내 기능성신발 메이커인 삼양통상에서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신발 성불화Ⅱ "카필라"를 생산판매하고 있어 성불화Ⅰ에 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불화Ⅱ "카필라" 브랜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세자였던 인도의 고대국가 이름이며 과학적인 설계로 신발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가볍게 하고,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장시간 보행에도 피로감을 감소하게 제작된 기능성 신발이다.

신발내부에는 신소재를 사용해 겨울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공기를 차단해 매우 따뜻하고 여름에는 발냄새까지 흡수해 외부로 방출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며 신고, 벗기 편하게 원터치 신발끈으로 되어

최고급 천연방수 "뉴빅" 사용

있다. 디자인면에서는 불자님들의 평상복에도 잘 어울리며, 스님께서는 승복색상에 맞추어 품격있게 제작하고, 최고급 천연방수가죽 뉴빅을 사용해 세련되어 종교를 떠나 타종교인들도 신성하고 있다. 또한 "카필라"를 신고 만행할때 악취와 잡귀를 미리쫓고 좋은 인연과 귀인을 만나게 만트라를 넣은 것이 독특하다. 성불화 "카필라"는 남여 공용으로 225mm부터 280mm까지 사이즈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신을 수 있다. 가격 88,000원

레저, 등산엔 아이젠 트래킹화!



• 남성용
• 특수아이젠 부착으로 미끄럼 방지
• 수많은 최첨단 테크닉을 거쳐 개발된 신기술 등산화
• 안전화에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눈송발 소재의 밑창
• 여성용
• 가격 88,000원
• 여성용(색상외엔)

문의: 080-775-7575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목·기관지가 불편할때

도라지 진액 상쾌 출시!

날씨가 건조해지거나 환절기에는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유는 모두 다르겠지만 앞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나 본인 모두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 만약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이라면 토종도라지를 눈여겨 보자.

도라지에는 탄수화물을 비롯한 칼슘, 철분이 풍부할 뿐 아니라 라시코틴이란 성분이 목보호에 도움을 주어 예로부터 널리 이용되었다. 고려한방제약에서는 과학적인 연구토대로 이 사실을 알게되어 목, 기관지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하여 토종도라지에 더욱 좋은 터력을 추가하여 새로운 신제품 상쾌를 출시하였다. 고농축된 토종도라지 상쾌진액은 티스푼 만스푼 정도를 그대로 먹거나 물에 타서 1일 2~3회 간편하게 음용하면 된다. 가격은 종전 판매가130,000원에서 100윳트 한정 99,000원에 특별할인하여 공급하고 있다.



내용량 : 110g×3병
(주)고려한방제약
문의 1566-1940
농협 483-02-192611 전전화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참웃! "천하무적" 웃가네 토종참웃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검사

웃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웃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웃이 좋은 것은 알지만 웃말 걱정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웃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분들로 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 성기승 박사와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안전성 검사실험을 완료하였다.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



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조금만 움직여도 만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언론보도자료

- "인정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 MBC 고희은 지금 - 웃 언더는 참웃 최초 개발
- KBS 고희은 아침 - 참웃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성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웃말 걱정 없는 참웃 개발
- 2003.11 한국경제 - 참웃 식품을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웃 언더는 참웃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참웃 부작용 걱정대, 난 여!
- 2003.11 스포츠조선 - 부작용 없는 웃, 안전성 완료
-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질서만 익히 되는 웃 건강법 알찬
- ▶2006.8 20 KBS 성심일요일 - 계절의 보석 웃 알찬
- ▶2006.10.31 KBS 무한지대류 - 협찬

구입엔 꼭 확인을...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은 일반시장 제품보다 신빙성이 뛰어나 많은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문의: 웃가네 참웃농원
무료전화: 080-838-3366